

데스크 톱



우성진 제2사회부장

73년 동안 유족들이 가야할 길은 분명했다. 한을 풀어줄 여수·순천 10·19 특별법이 국회 발의 20년 만에 통과됐다. 절차에 따라 지난해 11월2일부터 같은 해 12월1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이달 21일 시행된다.

눈여겨봐야 할 여순사건법 시행령안

나머지 22건은 '불수용' 판단을 받았다. 수용된 주요 내용은 '제3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문기구 규정, '제8조 진상규명 신고 절차 및 방법'에서 진상규명 신고서 서식을 시행령에 규정, '제10조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에서 접수처를 실무위에서 실무위와 지자체 및 재외공관까지 확대 등이다.

24건 가운데 4건만 정부 수용

'불수용'된 내용들을 각 조의 순서에 상관없이 들여다보자. 위원회는 전체 위원 3분1 이상을 지역에 안배, 위원회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규정, 임기제 공무원 원과 별정직 공무원 채용, 희생자 유족들의 신고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등이 있다.

현재 시행령안에 규정된 조직과 인력으로는 조사기간 2년 내에 명확한 진상조사가 이뤄지기 힘들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소위원회 상설화와 위원회 산하 사실조사 기구의 확충이 절실하다. 여기에서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한 진상조사보고서 기획단 조기 출범 및 실무단 위 구조의 변경 내용을 시행령에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소위원회 상설화의 경우, 제주4·3은 매년 2회 정도 모두 14차례 회의를 열었다. 짧은 기간에 수없이 처리되는 진상조사와 희생자 명예회복 심의 건이 1년에 2~3회 정도의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는 희생자 및 유족의 사건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소위원회의 상설화를 통해 안전 심의의 효율성을 담보하고 민간 위원의 구성 비율을 높여 진상조사의 전문성을 더할 필요가 있다.

4·3과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최대한 시간을 앞당길 수 있다.

특히 진상조사보고서 기획단 조기 출범 및 실무단의 구조 변경 사항의 경우, 현재 알려진 시행령안은 실무위원회-소위원회-위원회의 3단계 심의·의결 구조로 여순사건 명예회복위원회가 만들어진다. 기획단이 별도로 조직되면 '육상육' 구조로 심의·의결 과정이 예상과 달리 비효율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기획단을 위원회 구조가 아닌 실무단위 구조로 만들어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뤄지게끔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답은 향후 후속조치 여부

유족들과 지역사회는 지금 정부와 국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이 만들어 졌다는 데 제대로 돼 가고 있냐'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제는 위로를 받아야 하는데-'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다. 이들의 요구에 대한 해답은, 앞서 언급한 최소한의 지적에 대한 정부의 부응과 향후 후속조치에 달려있다. '여순사건법 시행령'은 행정부의 검토를 마치고 법제처로 이관됐으며 반제처는 여순사건법 시행일인 오는 21일에 맞춰 시행령안을 심사하고 확정한다. 결과를 다시 한 번 주목한다.

기고



박정아 한국원예치료사협회 소속 꽃놀이&마음놀이터 대표

2022년 임인년을 시작하는 지금 우리는 올해의 계획 또는 바라는 일 중 하나는 코로나19가 없는 세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 겨울에 그저 이웃국가의 질병쯤으로 여긴 코로나가 지금은 세상을 뒤덮는 무시무시한 질병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한 문제는 많지만 이 가운데 가정의 정서적 부분이 두드러집니다. 부쩍 늘어난 온라인 수업과 재택근무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꽃 한송이의 선한 영향력

가장 내 문제로 인한 상담요청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가정의 일입니다. 엄마가 딸에게 책을 사라고 준 카드의 사용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화 큰 싸움으로 변했습니다. 엄마가 책값 비용을 많이 썼다고 하자 딸이 이 말에 상처를 받고 말대꾸하면서 서로 감춰진 감정이 폭발했던 것입니다. 보통 첫 상담 때 자신의 감정이 어느 정도 정당인지 말하게 하고 이후 어떤 선택을 할지 등을 거지도록 하는데, 이 가족에게 식물을 매개체로 한 자기통찰 단계를 제안해봤습니다. 식물의 촉각과 후각, 시각 등이 인간 본연의 심성을 자극하고 정서 안정을 이루게 하는 원예치료의 적용입니다. 가족은 이 같은 방법을 통해 서로 상대 말을 닦하기 전 자신의 말 '시작점'을 찾게 됐습니다.

가정 내 문제로 인한 상담요청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가정의 일입니다. 엄마가 딸에게 책을 사라고 준 카드의 사용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화 큰 싸움으로 변했습니다. 엄마가 책값 비용을 많이 썼다고 하자 딸이 이 말에 상처를 받고 말대꾸하면서 서로 감춰진 감정이 폭발했던 것입니다. 보통 첫 상담 때 자신의 감정이 어느 정도 정당인지 말하게 하고 이후 어떤 선택을 할지 등을 거지도록 하는데, 이 가족에게 식물을 매개체로 한 자기통찰 단계를 제안해봤습니다. 식물의 촉각과 후각, 시각 등이 인간 본연의 심성을 자극하고 정서 안정을 이루게 하는 원예치료의 적용입니다. 가족은 이 같은 방법을 통해 서로 상대 말을 닦하기 전 자신의 말 '시작점'을 찾게 됐습니다.

특지광장

농촌이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자식들은 객지로 떠나면서 농촌 마을은 홀로 사는 노인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예전 같으면 어른 대접을 받았을 50대 나이는 이제 젊은이 층에 속할 정도이니 현 농촌의 실태를 알만하다. 그러나 부부가 같이 살고 있는 가정은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홀로 사는 독거노인 세대가 많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가정사실이다. 이렇듯 혼자 사는 노인들이 늘어가 있다 보니 바람이 차가워지며 따뜻한 아랫목에 기대 되는 계절이 되면 아무래도 무척이나

독거노인에 관심 갖자

힘들고 쓸쓸한 계절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이렇듯 혼자 사는 노인들이 외로움에 지쳐 있지만 사회의 냉대속에 선택 도움을 요청하지 못해 쓸쓸히 노년을 맞고 있는 노인들도 많은 실정이다. 사회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쓸쓸하게 죽음을 맞는 홀몸노인이 크게 늘고 있으며 노인학대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핵가족 사회의 집현으로 좁히는 독거노인이 부쩍 늘어나면서 혼자 살다 외롭게 숨지는 사건은 이제 새삼스런 뉴스도 아닌 서글픈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현실은 비교적 지역공동체 의식과 유대가 강한 농어촌에서조차 이웃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외롭게 숨지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을 정도이다. 고령화로 접어들면서 부양기피와 학대 현상 등이 발생하면서 대책 마련도 요구되는 이유다. 마땅히 존경과 보호를 받아야 할 노인들이 비참하게 생을 마친다는 것은 우리가 지향하는 복지사회는 결코 아닐 것이다. 홀로 사는 노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주변 이웃이 찾아와 추운 날씨 속에 잘 계

시는지 안부를 물어준다면 이 얼마나 즐거운 것인가. 우리 주변의 홀로 사는 노인들을 찾아 한번쯤 이들을 찾아가 몸과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는 말 한마디를 건네며 안부를 살피는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찾았다면 따뜻한 겨울이 되지 않을까 싶다. 홀로 사는 노인들은 단지 마주 앉아 자신의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말동무가 돼주는 것을 더욱 바란다. 그만큼 이들 홀로 사는 노인분들은 외로웠던 것이다. 내 부모를 아끼고 사랑하듯, 주변의 혼자 사는 노인을 보살피고 챙겨 홀로 안타깝게 쓸쓸히 죽음을 맞는 노인들이 없기를 기원해본다. /김덕형 장성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사설

설 앞두고 택배대란 우려된다

민주노동총연맹(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총파업을 한 지 보름째다. 설날을 앞두고 택배 대란이 일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난해 4차례 파업을 했었다. 택배 노조와 사측이 끊임 없이 대립해 올해도 상시적인 파업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택배노조파업이 장기화하면서 하루 평균 40만 건의 물량이 쌓이고 있다. 택배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의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은 전체의 8%인 1,650여 명이다. 광주·전남에서 파업에 참여하는 노조원은 240여 명이다. 국내 택배 시장의 50%를 점유한 CJ대한통운이 파업해 택배 대란은 불가피하다. CJ대한통운과 계약을 맺은 중소기업의 불만도 늘어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우정사업본부(우체국 택배)가 일시적으로 CJ대한통운 물량을 처리하고 있지만 10일부

터는 파업 지역에서 소포 접수를 중단하기로 했다. 물류 차질이 현실로 나타날 셈이다. 이번 파업은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방역 강화 조치로 온라인으로 생필품을 구입하는 국민 생활에 매우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또 온라인 택배 판매로 생계를 유지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도 막대한 치명타를 주게 된다. 결국 국민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이다. 정부는 설을 앞두고 택배 대란 예방을 위해 인력 1만 명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파업 현장 실사를 위한 현장점검단을 꾸렸다. 코로나 19로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택배 시장을 이대로 둘 수 없지 않은가.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명분 없는 파업을 당장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국민의 삶을 불모로 잡은 파업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 정부는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고 물류 대란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

김대중센터 재도약 지역경제 전인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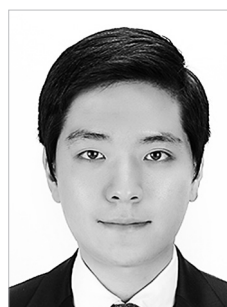
"2년 가까이 이어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경영 위기가 지속되고 있지만 임인년 새해에는 김대중컨벤션센터 임직원 모두 한마음으로 뭉쳐 위기를 돌파하고 재도약하는 원년이 될 것이다." 광주지역 대표 공기업 김대중컨벤션센터 김상목 사장이 '더 크고 더 강한 광주'를 위해 올해 같은 경영 계획을 세우고 마이스(MICE) 산업을 재도약을 다짐했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공기업 가운데 한 곳이 김대중컨벤션센터라는 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각종 전시행사와 국제학술회의, 민간 행사 등이 연이 이 울췌러들면서 MICE 산업이 날개를 펴지 못했다. 이로 인해 갈수록 경영 위기를 겪었으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서서히 호전되는 상황이어서 올해 MICE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짜겠다고 한다. 인공지능(AI)과 스마트팜, 스마트 업 컨퍼런스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

진할 수 있는 MICE에 역점을 뒀으며 대형 민간행사와 정부 순회 전시컨벤션, 국제학술대회 등을 선제적으로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동시에 고객관리시스템 고도화와 소통 활성화 등 고객감동을 넘어 고객성공을 위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사회공헌 및 시민 참여프로그램 다각화, MICE 인재 양성 등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을 추진한다. 오는 2025년이면 광주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이 개장을 하게 된다. 2만㎡ 이상의 대규모 국제 MICE 행사를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 미래 수요에 적극 대비할 수 있게 된다. 컨벤션센터가 위치한 상무지구가 정부 영 위기를 겪었으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서서히 호전되는 상황이어서 올해 MICE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짜겠다고 한다. 인공지능(AI)과 스마트팜, 스마트 업 컨퍼런스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

대형연구시설 구축 균형발전 이뤄야

저출산 고령화로 지방인구 절벽현상이 가속화되고 수도권 편중현상이 심화되면서 지방의 경쟁력 강화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미래세대들이 먹고 살 새로운 성장동력산업 찾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2022년 새해 화두로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미래 100년 대비'를 제시한 것도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광주는 고차기장연구소·AI 반도체특화단지 등을, 전남은 초강력 레이저센터·인공 태양공학 연구소·우주발사체산업클러스터 등을 유지하겠다는 목표다. 양 시·도는 대형 과학인프라를 통해 연관산업·기업을 끌어들이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전략을 세웠다. 과학연구기관은 그 자체만으로도 대형사업이지만 단순히 과학기술 개발에 그치지 않고 연관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지역의 미래성장 동력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특히 전남의 경우 올해 3월 개교할 한전공대를 생각하면 과학인프라 구축이 어느때 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한전공대의 연구 역량을 높이는 차원에서 그렇고,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김일현 정치부 차장대우 부동산, 교육, 환경, 교통 문제 등 대부분의 문제가 수도권 집중화 때문에 생겨났고 지방은 갈수록 메달과 심각한 소멸위기에 처해있다. 이러한 불균형과 불평등을 깨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점점 어두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수도권·충청·영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인프라 등이 열악한 광주·전남은 국가-대형 프로젝트에서 늘 뒷전으로 밀려났었다.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수소를 창출하는 것보다 피해를 주는 지역의 심각성을 헤아리는 정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재명·윤석열 등 여·야 유력 대선 주자들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 국가 균형발전을 핵심 전략으로 추진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김일현 정치부 차장대우

Table with 2 columns: 생활정보전화 and 긴급전화. Lists various phone numbers for services like emergency, police, fire, and medical aid.

Table for 전남매일 contact information. Includes address, phone numbers, and website details.

*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